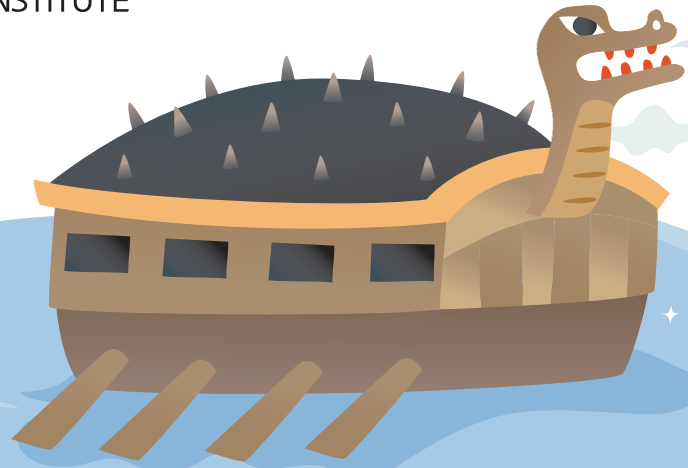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
YISUNSIN AMERICA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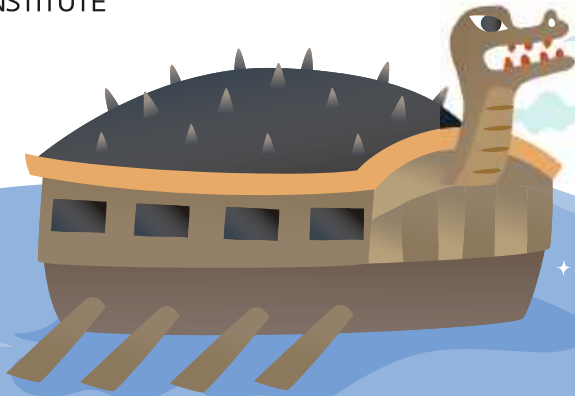
제3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수상작품집



www.yisunsinworld.com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
YISUNSIN AMERICA INSTITUTE



제3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수상작품집



● 후원 | 재외동포재단



CONTENTS

인사말

김대영 이순신미주교육본부 이사장	4
-------------------	---

전체

최우수상 노종현 동중부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 9학년	6
---------------------------------------	---

옥포

금상 이서현 동남부 RTP Triangle Korean School 3학년	12
은상 김예록 캐나다 몬트리올한인학교 3학년	15
은상 류예림 중서부 헬로쉽한국학교 3학년	18
동상 방지환 뉴잉글랜드 성요한한글학교 2학년	21
동상 이원준 멕시코 한글학교 멕시코 1학년	23
동상 엄지우 남서부 뉴송한글학교 3학년	25

한산

금상 유아리수 워싱턴 열린문한국학교 5학년	27
은상 김가온 콜로라도 새문한국학교 4학년	31
은상 선아섭 워싱턴 워싱턴통합버지니아 6학년	35
동상 김리혜 시카고 헬로쉽한국학교 4학년	38
동상 김사브리나 워싱턴 열린문한국학교 5학년	41
동상 임시아 동중부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5학년	44

명량

금상	김유정	남서부	뉴송한글학교 8학년	48
은상	임리노	중서부	시카고 하상한국학교 8학년	52
은상	조예인	미주연합	동양선교교회한국학교 9학년	55
동상	문시현	재멕시코	재멕시코한글학교 10학년	59
동상	오우혁	콜로라도	새문한국학교 10학년	62
동상	정혜나	워싱턴	성김안드레아한국학교 8학년	67

소개

이순신	미주교육본부	71
-----	--------	----

편집후기

72

역사 속에 성웅으로 추앙 받는 이순신 장군님!!



김 대 영

총무공 이순신미주교육본부
이사장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증오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이도 이순신이다”

라고 일본 장수 ‘와키자카’는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후손은 오늘날까지 매년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추어 한국에 찾아와 장군님께 성묘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해군 준장 ‘사토- 데쓰라로’는 “영국의 넬슨이 세계적인 명장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이지만 그 인격에 있어서나 창의성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순신의 짝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성웅으로 추앙하는 이순신 장군님이 계십니다. 그 장군님을 우리 후손들도 알고 본 받아 살 수 있도록 미주 교육본부에서는 매년 7월의 마지막 주간에

해외의 전 세계 한국학교 학생들(6학년~12학년)대상으로 ‘이순신 리더십 교육캠프’를 3박 4일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COVID-19로 인해 교육캠프를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제3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각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글들을 볼 때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책임을 완수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며, 희생을 감내하는 그 정신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글들을 보니 먼 훗날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장군님의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하며 개개인 각자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바로 알아, 거주하는 곳에서 주류사회를 이끄는 인재들로 자라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전세계에 이순신 장군님의 참 모습을 알려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한마음이 되어보기를 소원해 봅니다.

태산같이 우뚝 서서 조선의 바다와 나라와 백성을 구한 역사의 별, 위대한 리더십, 이순신 장군님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준비된 자세를 후세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올해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최우수상

진정한 리더 이순신 장군

노 종 현

Zachary No

동중부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 9학년

누구나 자신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 바로 '나의 아버지'이다. 나의 아버지는 이순신 장군과 같이 가족과 주변을 살피는 섬세함과 배려가 있고 나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다. 나는 미국에서 이민 2 세로 살고 있는데, 다른 여러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며, 부지런하시고, 배려와 솔선수범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며 사는 것을 느낀다. 이 사실은 우리의 조상,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인격이 나의 아버지는 물론이며, 한국 사람들의 삶과 정신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다.

내가 이순신 장군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4 학년 때 '명량' 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다. 기억해보면,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순신 장군의 용감함과 전술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나의 조국, 한국이란 나라에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장군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분 이기에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 그런 이유로 이번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에 도전하게 된 것이

다. 나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자료를 찾아 보고 그 분에 관하여 알게 되면 될수록 이런 완벽한 리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더 나아가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진지한 고민도 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것이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랐던 500 년 전에도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리더였지만 500 년 전과는 비교도 안되게 발전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롤 모델로서는 최고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살펴 보며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조금이나마 배우고자 한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어떻게 23 번의 해전에서 23 번을 모두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선조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이고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일본은 중국이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를 자주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혀 백성들의 삶이 무척 힘든 때였다. 이순신 장군은 그 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까지 전쟁에 관한 정보를 듣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걱정해 군사를 훈련하고 낡은 배를 수리했다. 또한, 방향 전환과 기동력이 뛰어나며 화포까지 갖춘 판옥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북선을 만들며 전쟁을 준비하셨다. 거북선은 화포를 쏘아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전선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졌는데, 우리의 배가 일본 배에 가까이 갔을 때 일본 군이 우리 배에 타고 올라와 조선 수군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판옥선에 지붕을 덮어 만든 전투함이다.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에서 발전시켜 거북선을 만드신 것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이순신 장군의 창의적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께서 거둔 23 해전의 승리는 오직 그가 가지고 있었던 판옥선과 거북선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승리 이유이다. 그러나 또 다른 승리의 요인을 찾아보면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전투 방식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항상 창의적 사고를 멈추지 않은 이순신 장군만이 가능했던 전술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산도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학익진법” 이란 전술을 사용하여 일본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모



든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낸 이순신 장군의 완벽한 리더십에서 돋보이는 창의적 사고는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임을 알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의 창의적 사고는 이순신 장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끈질긴 도전과 인내심, 그리고 팀웍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나도 이런 점을 본받기 위해 현실에 그냥 있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책도 읽으며, 여러가지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야겠다. 더 나아가 항상 오픈 된 생각으로 창의적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겠다.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리더십은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을 비교하면서 또한 배울 수 있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 성과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해전이였다.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은 1597년 7월과 9월, 단 두 달 사이에 일어난 해전으로 칠천량해전은 원균이 이끌어 완전 패배한 해전이고, 명량해전은 최악의 상황과 조건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끌어 기적의 승리를 이루어낸 해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조 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칠천량해전에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의 수군과 전투함을 지키기 위해 임금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감옥에서 힘든 고문을 당하시고 백의 종군이 되기도 하셨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을 그 누구에게나 그가 임금일지라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용기 있는 리더였다.

한편, 원균은 적에 관한 정보 수집도 부족하였고 작전 계획도 없었다. 부하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하니 당연히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부족하였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싸움이 아니고, 죽음만이 전략이라 말하는 원균을 따르는 전투에서, 싸워야 했던 부하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균은 뒤에서 극히 일부의 전선만 지휘했다 하니 그런 리더가 이끌었던 칠천량해전의 패배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았다.

칠천량 해전에서 수많은 전투함, 전선과 거북선 그리고 조선수군을 잃고 나자 선조 왕은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했다. 억울하게 백의 종군을 살았던 이순신 장군은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라

에 충성하는 분이셨기에 그는 왕의 명을 다시 받아들였다. 왕도 포기하여 육군에 합류 하라는 왕을 설득하여 겨우 12 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해전을 준비했다. 명량해전을 준비하는 이순신 장군에게는 부서진 배 12 척, 왜군을 피해 이순신 장군을 찾아 모인 배고픈 백성들, 칠천량해전으로 인해 전투력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 다른 의견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하 지휘관들, 그 외에도 무능한 왕은 피해서 도망까지만 상황이라 군복과 군사 식량조차 나라에서 지원 받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부서진 배를 고치고 배고픈 백성과 병사들을 돌보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은 물론이며, 병사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 “무릇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며 용감히 싸울 수 있도록 병사들을 이끌어 주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명량해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병목 현상을 전술로 사용하였다. 이 때, 좁은 해협으로 일본 군을 유인하려 했으나 두려움에 나서지 못하고 이순신 장군 뒤에서 숨어있는 전선들을 뒤로 하고 그들이 용기내서 나설 때까지 제일 앞에서 솔선수범하여 133 척의 일본 배를 맞서 싸우며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셨다.

이순신 장군은 다른 어떤 영웅보다, 또 영화에서 봤던 그 어떤 슈퍼 히어로보다도 용감하고 멋지셨다. 솔선수범하며 먼저 희생하는 리더십은 흩어진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위기를 승리로 바꾸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략가이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다. 그리고 나는 이순신 장군이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뛰어난 리더만이 아닌 위대한 리더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겸손함과 배려심을 갖춘 훌륭한 인성을 가진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23 번의 싸움을 모두 이기고 벼슬이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은 없는데 이름만 난다.” 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고, 이순신 장군이 싸우고 계신 곳에 찾아온 피란민까지도 돌보신 사랑이 많은 분이셨다. 이순신 장군은 리더가 가져야 할 전문성과 도덕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나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과 삶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나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그 많은 리더십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8학년 때 총학생 회장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부족한 나의 리더십에 많은 고민을 했었다.

나를 질투하는 반대편 학생들과 함께 임원이 되어 학교의 행사를 의논하고 진행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꼈었다.

그 때 내가 이순신 장군의 소통의 리더십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함과 겸손함을 알았더라면 좀 더 지혜로운 회장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약속했던 문화의 날을 준비하며 나와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다. 문화의 날 행사를 잘 해내고 전보다 가까워진 학생회 임원들과 다음 프로젝트인 체육관에 대형 선풍기 설치하기를 위해 함께 타운십 미팅에 참여했다.

예산을 통과 시키기 위해 학생회 임원들은 그룹을 짜서 리서치를 했다. 대형 선풍기 가격과 설치비 등의 여러 옵션을 찾아 보았고 이쪽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부모님께도 여쭙보았다.

대형 선풍기가 없어서 체육관에 더운 온도를 낮추지 않을 때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건강에 미칠 나쁜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타운십 미팅에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서 마침내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대형 선풍기가 학교 체육관에 설치 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확인 이메일을 보냈고 우리가 졸업한 그 해 여름 방학에 마침내 대형 선풍기가 체육관에 설치되었다는 이메일을 타운십 회장으로로부터 받았다.

나는 내 친구들, 그 누구보다 함께 수고했던 임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우리는 졸업생이기에 비록 대형 선풍기가 시원하게 도는 체육관에서 농구를 할 수는 없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후배들과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뻐했다.

타운십 회장님과 친구들은 나에게 ‘회장 수고했어’ 라고 했지만 나는 나 혼자 해낸 일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학생회 임원 개개인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우며 애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8 학년 때의 경험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공부하고 알게 된 지금, 나는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 2 세로서 앞으로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 그냥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전문성만 뛰어난 리더가 아닌, 이순신 장군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포용력과 사랑을 가지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않는 따뜻한 리더가 되고 싶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매 달 찾아가는 한국 양로원의 어르신 분들이 더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전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해야겠다. 세상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리더이면서 무엇보다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않는 따뜻함을 갖춘 리더가 되고 싶다.





옥포 금상

존경스러운 우리나라의 장군님

이 서 현

Suh Hyun Lee

동남부 RTP Triangle Korean School 3학년

존경스러운 우리나라의 장군님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을 물리쳐 우리나라를 구한 훌륭한 영웅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이순신장군은 용감하고, 총명하고, 청렴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이 용감했다고 생각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는 이순신 장군께서 겨우 끌어 모은 배 13척의 판옥선으로 열 배가 넘는 133척의 일본수군을 명량의 좁은 물목으로 끌어 들여 죽을 힘을 다해 31척을 부숴버리자 일본 수군은 당하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이 일화는 작년에 제가 겪은 ITP라는 병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병은 저에게는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갔습니다. ITP는 혈소판이 많이 없으면 생기는 병입니다. 혈소판이

부족하면 피가 멈추기 힘들고, 명도 잘 들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아주 위험한 병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 놀고, 축구도 하고 재미나게 지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일들이 되었고, 매일 뛰어 놀고 있는 친구들 모습을 벤치에 앉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점은 피검사를 위해 큰 주사기로 피를 5번 이상 빼야 했습니다. 처음은 무서워서 다리가 너무 떨렸고 그때 아빠가 제 옆으로 오셔서 손을 꼭 잡아 주셨고, 엄마가 울고 있는 저의 눈을 살짝 가려 주었습니다.

근데 계속 해보니까 조금씩 괜찮아 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뛰어 놀며 지내고 싶어서 의사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약도 잘 먹고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들도 골고루 먹어 가며 건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게 ITP는 많이 좋아졌고, 저는 친구들 보다는 조금 적은 혈소판을 가지고 있지만 제 가슴속에 용감한 마음이 자리게 되어 지금은 두려움 없이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일화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 존경할만한 이순신장군의 장점은 총명함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이 마흔일곱 (47)살 때 전라도 여수 지역을 지키는 전라 좌수자가 되자마자 미리 전쟁을 준비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이라는 신기한 방탄전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점에서 저는 이순신의 총명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학교 수업시간 때, 제가 그 거북선을 선생님과 같이 만들어 보았는데, 너무 어려워 한참을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몇 십 배나 큰 거북선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모아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설명서와 부품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조립만 하면 되는 모형배를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려웠는데, 실제로 거북선을 만드시기 위해 그 설명서와 부품들을 모두 다 만들어내신 이순신 장군의 지혜롭고 총명한 모습에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은 매우 청렴했습니다.

이순신이 살던 시절, 남자들은 두 부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오늘날의 육군 본부와 같은 훈련원에 근무할 때 자기의 최고 책임자에 해당하는 병조판서(국방장관) 김귀영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이라는 군관이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첩이 나온 시녀를 보내었으나, 이순신 장군께서는 좋아하기는 커녕 '벼슬길에 갓 나온 내가 어찌 권세 있는 집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겠느냐'라며 중매쟁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림대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미술학원 선생님께서 상을 타기 위해서는 더 잘 그려야 하고 눈에 띄어야 하니 선생님께서 덧칠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7살 아기였고 상장보다는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울먹이며 선생님께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 드렸고, 선생님은 어린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제 그림은 제가 그린 그대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아직도 제 책장 위에 걸려있고, 엄마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커서도 늘 자기 주관을 가지고 소신 있게 지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감하고 총명하며 청렴하신 이순신 장군처럼 두려움이 생기는 외국생활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들과 행동으로 잘 지내며,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서 한국사람의 지혜로움을 많은 나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옥포 은상

마음속에 나라를 품는 사람


김 예 록

Yerok Kim

캐나다 몬트리올한인학교 3학년

내 생일은 4월 28일이다. 엄마께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생일마다 한번씩 말씀하셨다. 내가 누군가와 생일이 같다고 하셨는데 그게 누군지 어릴 때는 몰랐다. 들어도 잊어버렸다. 아기 때부터 베트남과 캐나다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 달력을 볼 기회도 없었다. 그러다가 이 글을 쓰게 되면서 나와 생일이 같다는 누군가가 이순신 장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깜짝 놀랐다. 내가 한국에 살았다면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을텐데. 한국의 4월 달력에는 28일 아래에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거북선이었다. 임진왜란 때 일본 배 300척 앞에 선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떨렸을까. 이순신 장군의 배가 그 많은 왜적의 배를 물리쳤다는 게 신기하다. 어떻게 거북이를 보고 배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이순신 장군님은 머리가 참 좋다. 거북선은 소나무로 만들어졌고 거북이 처럼 딱딱한 등껍질이 있어서 어떤 화살도 막아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나 보다.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발명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나라의 거북선이 왜적의 배들과 부딪혀서 왜적의 배가 부서졌을 때, 왜적들이 후퇴할 때 내 마음이 두근두근했다. 거북선 위에 있는 거북이 얼굴을 보는 내 눈이 커졌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이 자꾸 났다. 왜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지 않고 남의 나라를 자꾸 쳐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순신 장군님 덕분에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다. 내가 한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방학 때마다 갔던 한국은 참 멋있고 좋았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풍겨오는 느낌은 뭔가 달랐다. 공기 냄새도 좋고 길거리의 사람들 얼굴은 밝고 활기찼다. 그래서 한국에 갈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다. 그런 나라가 예전에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슬펐다. 믿어지지 않았고 그때 살던 사람들이 고생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이순신 장군님은 전쟁하는 중에도 배 위에서 일기를 썼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다. 와, 나는 일기 쓰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순신 장군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멋있기만 한 줄 알았는데 심경도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님을 보고 예전엔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지 몰랐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웠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간 이야기를 읽고 화가 났다.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았나 보다. 나도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베트남에서 국제학교에 다닐 때에는 여러 나라 친구들이 다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캐나다에 오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나를 놀이에 끼어 주지 않았다. 같이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놀다보면 그게 아니었다. 나는 한동안 실망하면서 지냈다. 하지만 나는 운 적이 한번도 없다. 겁을 먹지도 않았다.

“나는 나만의 솔루션이 있어. 걱정하지마, 엄마.”

나를 걱정하는 엄마에게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갈 길을 갔다. 마치 이순신 장군님처럼. 물론 학교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내 마음은 너무 슬펐다. 마치 내 심장이 부러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근데 나는 이순신 장군님처럼 항상 당당했다.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나는 항상 웃고 그들 곁에 있다가 도울 일이 생기면 도와주었다. 나는 지금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다. 나를 따돌렸던 친구들을 미

워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나는 위기의 상황에 꼭 당당할 것이다. 내가 이순신 장군과 생일이 같다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내 생일에 케이크를 놓고 축하할 때 이순신 장군님이 생각날 것이다.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같이 축하해드릴 것이다. 나는 캐나다에 살지만 한국을 내 마음에 품을거다. 이순신 장군님처럼 앞으로도 내 나라 한국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 갈 길을 간다.





옥포 은상

포기하지 않는 용기

류 예 립

Olivia Ryoo

중서부 헬로십한국학교 3학년

언니의 드레스를 사려고 엄마, 언니들과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드레스를 고를 때 나는 예쁜 드레스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만 엄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를 자꾸 소리질러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서 나는 울고 말았어요.

나는 일하시는 분한테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해 주셨어요. 놀란 엄마가 달려 오셨고 엄마를 보자 나는 너무 안심이 되었어요. 그 후로 나는 백화점에 가면 엄마가 내 옆에 있는지를 맨날 확인해요.

친구나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슬픈 일이에요. 특히 전쟁이 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면 얼마나 두렵고 가슴이 아플까요? 나는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무서운 기분이 들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 사람들은 정말 겁이 났을 거예요. 일본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포기를 안했어요. 포기를 안해서 이순신 장군은 한국을 일본에서 구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진짜 용감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쳐들어 왔을 때 아마도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다 죽겠구나 싶었을 거예요.

나라를 잃게 된다면 어떤 기분 일까요? 너무나 무섭겠지요. 그러나 싸울 힘도 용기도 없는 백성들은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왕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연구했어요.

일본 군대의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서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거북선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순신 장군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은 바다에서 하는 전투에 약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으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나는 이순신 장군이 10년 넘게 과거시험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나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았을 것 같아요. 말에서 떨어졌을 때도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4년 후에 다시 도전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에게 백의 종군하라고 했을 때도 나 같으면 그냥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이순신 장군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런 성품이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른 장군들은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투에서도 포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마지막 전투에서는 적의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자기 군대와 군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용기를 잃을까봐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포기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어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없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어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라도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무섭겠지요. 나도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겠어요.



옥포 동상

꿈을 이룬, 이순신 장군

방 지 환

Jihwan Bang

뉴잉글랜드 성요한한글학교 2학년

이순신장군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히는 나쁜 일본 군인들을 물리치기 위해 거북선을 만들어서 나쁜 일본 군인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지켜낸 멋진 장군이에요.

이순신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 놀이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매일 전쟁 놀이에서 대장을 하며 즐겁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순신장군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이순신장군은 화살 쏘기와 말 타기를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했지만, 무관 시험에서 말 타기를 하던 중에 말이 갑자기 넘어져 이순신장군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렇지만 나뭇가지로 부러진 다리를 고정 시켜서 끝까지 활 쏘기를 했지만 무관 시험에서는 불합격했어요. 이순신장군은 무관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슬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무관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활 쏘기와 말 타기를 처음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열리는 무관 시험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고 활 쏘기에서 가운데를 맞췄어요. 말 타기에서는 지난번처럼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수를

하지 않은 이순신장군은 무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장군이 된 이순신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평화롭게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죽이고 먹을 것과 돈과 보석들을 빼앗아 가는 나쁜 일본 군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거북이를 보고, 7년 동안 몰래 거북이와 모양이 비슷한 거북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북선으로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의 먹을 것과 돈, 보석들을 뺏으려고 쳐들어올 때 이순신장군은 힘들게 몰래 만든 거북선을 타고 바다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먹을 것, 돈, 보석들을 잘 지켜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598년 일본군 대장이 죽으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 군인들은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어요. 그렇지만 이순신장군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우리나라 국민들을 죽이고 먹을 것과 돈, 보석을 빼어난 일본 군인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복수하려 했어요. 그 전쟁의 이름은 노량해전이에요. 이순신장군은 일본으로 도망가는 일본 군인들의 길을 막아 썼어요. 그러자 일본 군인들은 우리나라의 배에 조총을 쏘어요. 그리고 이순신장군은 일본 군인들이 쏜 조총에 맞았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내가 죽은 것을 일본 군인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계속 나라를 위해 싸워라”라고 말 하고 끝까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지키며 돌아가셨어요.

저는 커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는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순신장군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실수해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노력해서 꼭 판사가 될 거예요. 이순신장군이 7년 동안 일본 군인들을 물리치기 위해 준비한 것처럼 저도 판사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숙제하고 공부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순신장군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옥포 동상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원 준

Wonjun Lee

멕시코 한글학교 멕시코 1학년

제 생각에 이순신 장군은 훌륭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장군이 되고 싶어서 전쟁 놀이를 놀았던 것 같아요. 또 꼼꼼히 계획을 세웠어요. 이순신 장군이 젊었을 때 군인을 뽑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더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열심히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장군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정말 훌륭해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었던 말에서 떨어졌을 때 포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를 눈치챈 한 사람이 말 했어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 오려고 합니다. 무기와 군사를 모으고 전쟁에 준비해야 됩니다!” 임금은 그 신하의 말을 무시했는데 이순신은 생각했지요. ‘맞아, 언젠가는 외국인이 쳐들어 올 거야. 배도 만들고 무기도 준비하자.’ 이순신 장군은 준비성도 많고 왕은 신하 말을 안 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들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엄청 많은 일본의 배가 쳐들어 왔어요. 준비도 없이 정신 없는 군사들은 도망을 쳤지요. 우리 나라 사람들도 총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일본 사람들은 계속 이기면서 왕이 있는 곳까지 다가 갔어요. 깜짝 놀란 왕과 신하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비장의 무기 거북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임금님이 시키지 않은 것도 스스로 했어요. 저는 엄마가 시키는 것을 엄마가 몇 번 말해야 들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임금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거북선도 만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다른 사람들하고 엄청 달라요.

제일 멋있었던 것은 우리 나라의 13척의 배가 133척의 배를 무찌른 것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친구 13명이랑 있는데 나쁜 애들이 133명이 있어요. 그 나쁜 애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 괴롭고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저처럼 무서웠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저에게 끝까지 싸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처럼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죽기 전에 말했어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그래서 제 생각에 이순신 장군은 정말 훌륭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거예요.



옥포 동상

꿈을 이룬 이순신 장군


엄 지 우

Aiden Jiwoo Eum

남서부 뉴송한글학교 3학년

이순신 장군은 조선 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바다에서 적과 싸우던 해군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7년동안 이어진 임진왜란에서 일본에 맞서 한국을 지켜내신 용감한 장군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번 글쓰기 공부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더 알게되었고, 이순신 장군이 다른 사람과 다른점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이순신 장군은 똑똑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쓸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이때, 거북이처럼 딱딱한 등껍질을 만들어서 적군이 총을 쏘거나 활을 쏘도 튕겨 나가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가시같은 것을 달아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용모양의 머리를 붙여서 대포를 쏘게 하였고, 굳은 나무판자로 만들어서 일본군이 총을 쏘도 뚫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거북선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배 7개중 하나로 뽑힐정도로 뛰어난 군함이었습니다.



둘째, 이순신 장군은 전쟁만 잘한것이 아니라 글도 잘 쓰셨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난중일기”를 써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했었는지 기록하셨습니다. 이 일기를 보면서 전쟁중에 잘한점이랑 못한점 또는 다음에는 바꿔야할 계획 등을 적어 놓아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참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난중 일기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할 때 좋은 전략과 계획으로 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 지형, 물의 속도 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잘 계획하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는 한국배 13개로 일본배 300개가 넘는 것을 이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길수가 없는 싸움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좋은 계획으로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이순신 장군은 용감하고 겁이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우리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 군사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을 때 충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전쟁에 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른 군사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하고 알고 나니,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기발한 생각으로 거북선 같은 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모든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장군이 되고, 거북선을 만들고, 여러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하려고 하는 군은 의지가 있어서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산 금상

한산도에서 마운트 버논에서

유 아 리 수

Aurora Arisoo Yoo

워싱턴 열린문한국학교 5학년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체험 학습으로 버지니아에 있는 조지워싱턴의 생가인 마운트 버논 (Mount Vernon)에 다녀왔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조지워싱턴은 미국의 최초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이 저와 같이 버지니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그는 처음에는 해군이었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영국군과 싸워 미국을 독립하게 한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는 이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역시 한국에는 이순신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순신 장군은 일본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워서 우리 나라를 지킨 우리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장군이에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마운트 버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운트 버논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면서 조지워싱턴에 대한 숙제를 했어요. 문득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 보고 싶었어요. 요즘 가상현실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저는 가끔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치 박물관에 온 것처럼 박물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

와 이런 가상현실 에서 만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와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면 반갑게 먼저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거북선을 구경할 거예요. 거북선은 제가 사진과 박 물관에서 본 것도 있지만 가상현실에서는 좀더 저에게 가깝고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께서는 거북이 등쪽에 화살을 많이 놓으라고 하시고 거북선 밑에는 병사 들이 열심히 화포와 화살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 와 거북선을 타고 같이 바다에 나갈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한산도 앞바다에 도착했어요.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께서는 싸울 때는 표정을 근엄하게 표정을 지으시고 항상 주위의 병사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파도가 너무 심해서 거북선이 많이 흔들릴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는 아주 용감하게 거북선 앞머리를 향해 가시면서 큰 소리로 병사들에게 제자리에서 열심히 싸우라고 힘차게 소리치셨어요.

다시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과 함께 거북선 안에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얘기를 하는 동안 저는 거북선을 구경했어요. 거북선의 맨 아래로 가 봤어요. 그 곳은 아주 넓고 포탄과 화살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병사들은 아주 빠르게 화살을 옮기고 무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구와 싸울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이 보였어요. 다시 거북선 위로 올라가 봤어요.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병사 들과 작전 계획을 짜고 계셨어요.

갑자기 파도가 출렁이면서 거북선에 파도가 몰아쳤어요. 그렇지만 거북선은 흔들 리지 않고 깃발을 휘날리며 더욱 더 멋지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거북선의 머리는 용감한 모습을 드러내며 연기를 내뿜었어요. 적군의 배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북선의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사실 저는 너무 두려웠는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서셨어요. 역시 용감한 장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적의 배가 가까워지면서 병사들이 빠르게 노를 젓기 시작하고 화살이 머리 위로 빨리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용감히 싸우라고 외치셨어요. 다들 이순신 장군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왜구와 용감하게 싸웠어요. 왜구들이 거북선의 웅장한 모습에 놀라고 이순신 장군의 용기있는 태도에 두려워 하며 도망 가기 바빴어요. 왜구의 배는 거북선에 비교하면 아주 작고 어린이를 위한 배 같이 보였어요.


이제 왜구의 배를 물리치고 한산도 앞바다에도 평온한 파도가 찾아왔어요. 다시 저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내려 와서 밖에서 거북선을 바라 봤어요. 전 세계에 유명한 전함 이 많이 있지만 거북선은 그것들보다 무려 220년이나 앞선 배이고 왜구의 조총에도 끄떡 없이 살아 남아 다른 전함보다도 우수한 배라고 칭찬 받고 있어요. 그 크기나 구조가 너무 크고 잘 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USS Constitution호보다도 훨씬 더 멋있어요.

거북선을 밖에서 보니까 역시 모양이 거북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용의 머리를 달았고 그 입에는 총구멍을 만들고 뒤에는 거북이의 꼬리가 달려 있어요. 거북선 위에는 나무로 덮여 있는데 그 위에는 뾰족한 칼과 송곳이 있어서 왜군들이 쳐들어 오지 못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저는 가상현실에서 나와야 할 시간이 왔어요. 가상현실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 거북선을 둘러 보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타고 세계의 바다를 돌며 거북선의 위대함과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지도력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더 자세하고 멋진 가상현실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조지워싱턴과 같은 지도력이 있는 인물로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조지워싱턴이 명명한 세계 제일의 전함이라는 USS Constitution호보다 더 멋진 거북선에 대해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해요.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조지워싱턴 뿐만 아니라 제 조국 한국에도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계시다는 것과 USS Constitution호보다 더 오래되고 견고한 거북선이라는 위대한 전함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 주는 정말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오래 사는 거북이처럼 앞으로도 거북선이 우리 곁에서 영원히 있어 주기를 바라요.

이순신 장군님, 우리 다음에 같이 거북선 타고 또 여행해요. 이 번 여행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 만세! 거북선 화이팅!



한산 은상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

김 가 온

Gaon Kim

콜로라도 새문한국학교 4학년

내가 처음 만난 이순신 장군은 내가 다니던 한국학교 학예발표회 연극에서였다. 그때 나는 다섯 살이었다. 언니 오빠들이 꾸민 연극 무대는 참 재미있었다. 희한한 모자를 쓰고 긴 칼을 손에 들고 거북이처럼 생긴 신기한 배를 만들어 적하고 싸우는 장면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순신 장군이 화살에 맞는 장면이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맡은 언니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하고 외치면서 연극이 끝났다. '이게 끝이야? 주인공이 왜 죽지?' 내가 알고 있는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죽지 않고 사는데 화살에 맞아 죽다니... 그때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 연극이 끝난 게 아쉬웠다.

하지만 4 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반크에서 만든 '세계에서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영상을 보고 나서야 이해가 갔다. 온리 콤파이라는 만화가가 말할 것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영웅들은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나와는 정말 다른 주인공들이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실패도 많이 했지만, 결국 끊임없는 노력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

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럼 나도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건가? 이런 희망을 얻을 수 있어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미국인 만화가가 이순신 장군을 만화로 그렸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나는 이순신 장군은 한국사람들만 아는 훌륭한 인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담긴 만화책이 팔린다는게 신기하고 자랑스럽다. 나도 꼭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께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다. 거북선과 이순신의 위대함을 당연한 거지만 그걸 세계에 알려준 USNIS News 와 온라인 토크 만화가에게 고마운 마음도 든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한국인인 나는 그동안 그 위대함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이순신 장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나 ‘거북선’이다. 나는 보통 ‘거북이’라고 하면 느린 동물인데, 왜 하필 거북이 모양으로 배를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거북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생각했던 느낌보 거북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천하무적의 상상 속 동물 같았다. 단단한 거북이 등껍질에 용의 머리를 가진 튼튼하고 멋있는 배였다. 무서운 용의 입에서 연기까지 뿜어 낸다니 적들이 이 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벌벌 떨었을 것 같다. 더구나 등에는 쇠뿔이 꽂아져 있고 여러 개의 노를 저어 빠르게 움직이기까지 하고 말이다. 생각할수록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신기하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과 튼튼한 배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배임에 분명하다. 거북선 위에 쇠뿔을 꽂아서 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배 위를 지붕처럼 씌운 걸 보니, 군인들을 보호하려는 이순신 장군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거북선이 ‘역사상 위대한 세계 7 대 전함’에 뽑혔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랑스럽다.

나는 한국에 태어났지만, 2 살 때 미국에 와서는 한국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 만약 가게 된다면, 광화문에 들러 사진으로만 보던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고 싶다. 그리고 엄마가 어릴 적에 외할머니 고향인 여수에 방문할 때면 거북선을 꼭 보러 가셨다고 하셨는데, 나도 보고 싶다. 그림으로만 보던 거북선을 실제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우

선 나는 거북선을 보자 마자 직접 손으로 만져볼 것이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을 만들고 나서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그 거북선을 타고 바다를 누비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다. 이젠 한국에 가면 꼭 들르고 싶은 곳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이번에 엄마와 함께 ‘나라를 구한 우정’ 글을 읽어보았다. 나는 그런 우정이 있는 줄 몰랐다. 서로 도와주고 즐겁게 지내는 게 친구사이의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얼마전에 반 친구한테 일본이 한국을 괴롭히고 ‘독도’라는 한국 섬을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일본이 옛날에는 한국땅에 들어와서 한국말도 못쓰게 하고 이름도 일본이름으로 바꿔야했다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했다. 근데 그 친구가 한국인이 아닌데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화를 내며 내 마음을 알아줬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힘이 되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유성룡과 이억기와 같은 나라를 사랑하고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해낸 친구가 있었다고 하니, 그런 친구가 있는 이순신 장군이 부럽다.

나는 한국학교에서 이번학기 내내 ‘독도’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살아 계셨던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호시탐탐 한국땅 독도를 노리는게 화가 난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살아 계셨다면 일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궁금하다.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바다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도 없고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는 어린 아이지만 나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다. Wikipedia 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기되어 있고 ‘동해’가 ‘일본해’로 적혀 있다고 한국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해 주셨다. 나는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집에 와서 그 Wikipedia 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영어로 글을 남겼다. 그래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영어도 한국



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역사도 열심히 배울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로 한국역사도 제대로 배워서, 일본의 욕심으로 세계에 잘못 알려진 한국의 역사와 사실들을 바로잡아줄 것이다.

요즘 나는 학교에서 'Countries Around the World'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다. 나는 당연히 발표할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우리학교에 한국사람이 나 밖에 없으니 이번이 한국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의 위치, 태극기, 무궁화, 한복, 태권도를 찾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는 한국의 음식에 알아보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순신 장군 에세이를 쓰면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도 꼭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도 그랬듯이 반 아이들이 '거북선'을 보고 놀랄 반응이 무척 기대된다. 그리고 이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용감하고 위대한 장군인지 자랑하고 싶고, 미국에 사는 반친구들도 알고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만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알았다. 비록 죽었더라도 많은 사람들 마음에 훌륭하게 남아 있다면 살아있는 영웅이다. 이순신 장군은 죽었지만, 내 마음 속에 살아있는 영웅이다.



한산 은상

위대한 영웅, 다정한 지도자

선 아 섭


Ahseob Sun

워싱턴 워싱턴통합버지니아 6학년

“내 너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여러 명언 중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유일하게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는 이순신 장군, 도대체 그의 승리의 전술은 무엇이었을까?

이순신 장군의 승리 전법 중 가장 뛰어났던 것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병사들에게 필요했던 것들 중 하나가 전쟁통에 만날 수 없었던 가족에 대한 그 리움이 아니었을까. 이순신 장군은 그런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가족처럼 아껴주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리더십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보다 아래 부하들의 의견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스스로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부하들이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진심을 다해 대장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이순신 장군 밑에 목숨을 바쳐 함께 따른 훌륭한 부하들이 많았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인 그 옛날, 조선은 일본에 비해 군사력도 부족했고, 전함 수도 훨씬 적었고 그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 또한 이순신 장군을 밀어주지 않고 북쪽으로 피난 가기 바빴다고 전해진다. 그런 선조의 모습과 이순신 장군의 모습에서 나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그 때 이순신 장군도 바닷길을 왜적에게 내어주고 임금인 선조를 따라 피난길을 떠났더라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같은 전투함 개발에 있어서도 리더로서 부하들에게 지시만 하고 뒷전에 있던 사람이 아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유리한 배를 만들 수 있을지 연구에 열중하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말을 행동으로 옮겨 일본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군함의 약점을 우리 거북선에는 만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 만약, 싸우자, 이기자 등의 마음만 앞서 전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이순신 장군이 전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전쟁을 치뤘다면 전승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영화로도 유명한 명량 대첩을 봐도 알 수 있다. 12대 133 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이끈 이순신 장군의 힘은 바로 지혜로운 전술과 강인한 정신력에서 나온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이 이순신을 역적으로 몰았을 때에도, 그는 임금 한 사람,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을 지켜냈고 지금의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그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연구해 실천해 나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 계셨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전술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누르고 이겨 내셨을까 생각해본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 상대의 약점을 연구해 그것을 우리의 강점으로 이겨내는 전술을 사용하셨다. 현재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약점은 독도가 그들의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역사적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역사적 기록을 적극 사용하여 그것들을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게 자료로 만들어 전세계 곳곳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목숨 바쳐 지켜낸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 땅의 후손으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독도 문제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마치 전쟁에 나간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면 독도 문제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거북선과 같은 전설적인 발명에서 보듯이 현재의 우리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우리의 기술을 개발해서 수입을 줄이고 반대로 우리의 기술을 전세계에 수출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에 의지하는 약소국이 아닌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 믿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지금 이 땅에 없긴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 우리는 이런 장군의 뜨거운 마음을 되살려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꿈꾸는 자아를 가져야 하고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정신을 본받게 할 수 있도록 그의 업적을 소중히 보존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산 동상

친구

김 리 혜

Rachel Kim

시카고 헬로쉽한국학교 4학년

2학년 때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가야해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귀고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시 새 학교에서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야 할 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사가기 싫다고 떼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학을 가서 처음 새로운 친구들과 만났을 때 좀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 학교의 친구들이 하나 둘 씩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많은 친구가 생겼고 나는 새 학교에 다니는 게 즐거워 졌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운 일도 친구가 있다면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나는 내 친구들을 정말 좋아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에게도 훌륭한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류성용입니다. 류성용은 이순신 장군이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도 끝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둘은 잘 알고 지냈습니다. 한 동네에서 같이 놀며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사를 가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습니다. 옛날 역사책에는 류성용이 이순신 장군을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해 주었다고 나와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잘 몰랐지만 류성용이 언제나 친구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임금님도 류성용의 말을 듣고 이순신 장군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좌수사가 되고 금방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자 백성들은 너무 놀라고 겁이 났습니다. 일본군을 상대로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용감하게 싸웠고 조선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23 번의 해전에서 23 번을 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모든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류성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순신이 있기 때문이다.” 친구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류성용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훌륭한 점을 먼저 알아보고 그 친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모두가 존경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서로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먼 길도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재미없는 일을 해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정말 고맙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항상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국사람이지만 미국사람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많이 도와주었고 한국도 지금은 미국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도 좋은 친구가 된다면 어려운 일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전쟁도 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국사람들이 한국사람을 인정하고 좋은 친구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람들도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산 동상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김사브리나

Sabrina Kim

워싱턴 열린문한국학교 5학년

이번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사해보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 세계 7대 전함이라는 거북선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일찍 알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과 집과 결단력이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이순신 장군은 23번 바다 전쟁에서 23번 이겼다.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했기 때문이다. 승리를 만들어 놓은 후에 전쟁을 했다는 것을 배우고, 깜짝 놀랐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긍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한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도 항상 배우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이용해 이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승리한다.”고 한 이순신 장군을 기억

해야한다. 이순신 장군처럼, 열심히 준비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에게 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싸웠다. 특히 어려운 전쟁일 수록,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싸웠다. 우리도 쉬운 것만 하려하고,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열심히 먼저 할 수 있어야겠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거북선 모형을 본 적이 있는데, 거북선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느꼈다. 이순신 장군은 어려운 전쟁에서도, 배도 사람도 더 많아 보이게 하고, 훌륭한 거북선으로 승리했다. 거북선 앞에서는 연기가 나서 적들에게 모습을 감출 수 있었고, 위에는 창살로, 옆으로는 대포로, 적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았다. 그 옛날에 이런 우수한 전함을 만든 이순신 장군을 본받고 싶다. 창조적인 이순신 장군처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이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싸웠다는 것을 배우고,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 했는지 배웠다. 무엇보다도 이순신 장군은 12배로 160배를 이겼다. 12로 160을 어떻게 이겨가 아니라, 12이나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 정말 본받아야 한다.

“미천한 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배우고 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게 되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한 이순신 장군은 많은 교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못 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모든 것이 편리해진 지금,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는 우리들은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워야 한다.

“한 사람이 좁은 길을 막고 있으면, 천 사람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한 이순신 장군을 통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마지막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순신 장군은 죽어가면서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했다. 자신의 죽음이 적에게 우리의 약함으로 보여지기 원하지 않았다. 최고의 무장 이순신… 죽는 그 순간까지 나라와 백성을 걱정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배워야 한다. 이순신 장군을 통해 부하들은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희생했다.

나도 나라를 위해 돕고 싶다.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나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세계로 전하고 한국을 알리고 싶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열정을 알리고 싶다. 또한 나도 도움이 되고 싶다. 한국에 있는 미군부대 중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거북선을 로고로 사용하는 부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나는 그 부대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순신 장군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 세계에 알렸다는 온라인만의 만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이 만화를 미국 모든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위대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용기, 지혜는 전세계에서 배워야 한다. 한국 어린이들, 미국 어린이들만이 아닌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함께 하고 싶다.

또한, 이번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국에는 명량 이라는 영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다고 알게 됐는데, 그 작품들도 꼭 보고 싶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난중일기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전쟁을 참여했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다.



한산 동상

나에게 너무나도 맛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임 시 아

Ally Yim

동중부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5학년

나는 뉴저지 체리힐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1주일에 한번씩 꾸준히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국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처음 배우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배운 이후 한국학교 선생님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퀴즈를 만들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셔서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었다. 한국학교에서의 배운 것과 퀴즈를 통한 자료를 보던 중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쓰기 대회가 있어 난 더욱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자세히 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좀 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에게는 조금 어려웠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동화책처럼 상상이 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아마도 어렸을때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은 22세부터 훌륭한 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28세때 시험을 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더 노력해서 32세에 드디어 무과 시험에 합격을 해서 꿈에 그리던 장군이 되었다. 그 뒤에 조선의 왕 선



조는 어명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순신 장군을 파직 시켰으나 이순신이 아니면 아무도 바다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하면 가장 먼저 생각 나는 것은 거북선이다. 거북선은 단단한 소나무로 만들어 졌고 바다에서 전쟁 할 때 유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투함이다. 세계 7대 전함을 보면 동양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선진국의 전함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고 단연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사천해전은 거북선이 처음으로 출전해서 완벽하게 이긴 해전이다. 거북선은 판옥선에 주력선이며 이 전투 이후 일본 수군에게는 거북선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명량대첩에서 우리나라가 무기와 수군이 부족하여 너무 어려운 상황에 모두가 질거라고 생각했던 싸움을 이순신 장군의 리더쉽과 헌신적인 나라 사랑과 책임감으로 쓰러져가는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12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왜군들과 싸워 우리나라 조선을 지켜낸 1597년 명량대첩은 세계해전 역사를 통틀어 통쾌한 승리였다. 나에게 제일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대첩에서 왜군에게 총탄을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라는 말을 하고 죽었다. 이순신 장군 자신의 죽음을 조선 수군이 알게 되면 전투를 망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이다. 정말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분이시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두번째 기억에 남는 것은 이순신과 유성룡의 우정 이야기다. 좋은 사람을 알아내는 능력을 가진 유성룡은 겨우 이 삼년 사권 어릴적 친구 이순신을 유심히 보고 30년이 지난 후에 잊지 않고 이순신을 추천하였고 이렇게 자신을 믿어준 유성룡의 마음에 보답하듯 이순신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다. 마지막 총상을 입었을 때에도 유성룡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내가 앞으로 어른이 되어도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난 이순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좋아한다. 한국 사람인것도 좋고 한국 TV프로그램도 좋고 한국 가요도 좋고 너구리 라면도 좋아한다. 그리고 내 꿈은 한국에서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꼭 살아보고 싶다. 어느날 엄마가 한국학교에서 한국무용을 배우는 기회가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어렸을적부터 했던 발레를 그만두고 한국무용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레랑 너무 다르고 나만 계속 틀려서 그만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한국 무용이 너무 좋다. 발레와 달리 우아함도 있고 한복도 너무 예쁘다. 한국 무용단은 미국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한국 사람 앞에서 공연을 자주 한다. 공연을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무용팀이어서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는 팀워크가 항상 필요하다. 2018년도에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 참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학교 친구들 앞에서 동영상을 틀어주시기도 하셨다.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지만 무용할 때 입고 있었던 한복이 너무 이쁘고 정말 잘했다고 말해줘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다.

여태까지는 무용 공연을 하면서 그냥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좋아서 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것도 우리나라를 미국 사람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여기 사는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을 전혀 알지 못한다. 친구들에게 한국을 아냐고 물어보면 한국 노래나 BTS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다.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이고 살기 좋은 나라이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무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무용 공연에서 박수를 치거나 뷰티풀이라고 말해줄 때 나는 기분이 너무 좋다. 무용이 끝나고 나면 우리 무용단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미국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럴때마다 나는 열심히 한국에 대해 설명을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한국에 대해 공부해서 다음번에는 더욱 더 잘 알려주고 싶다. 이순신 장군처럼 큰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더 열심히 무용을 하며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미국에 사는 내가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하고 늘 아랫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하셨다. 그러나 규칙을 어기면 엄격하게 다스리셨다. 원칙을 지키셨고 겸손하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는 리더였다. 나는 이

순신 장군처럼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만약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내가 힘이 들어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한국 무용단에서도 팀이기 때문에 힘들거나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혹 힘들어 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마음을 나누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해오셨던 것처럼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꼭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것을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별히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대단함을 최선을 대해 알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나에게 여러가지 감동을 준 사람이다.



명량 금상

이순신의 리더십과 나의 다짐

김 유 정

Esther Kim

남서부 뉴송한글학교 8학년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 모르는 한국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세 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온 저나 미국에서 태어난 제 동생도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도 그 이름은 들어봤었습니다. 특히 드라마를 전혀 보시지 않는 저의 엄마는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한국 드라마를 일년에도 몇 번씩 돌려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글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전해 듣고 배웠던 내용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감히 장군님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글을 어떻게 써야하는 지 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떤 모임이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지난 모습들을 돌아보고, 비록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일지라도 장군님의 훌륭한 리더십의 덕목들을 본 받게 된다면 제 자신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보여 주셨던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저에게 귀감이 되었던 훌륭한 리더십의 덕목들 중 세가지를 저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훌륭한 리더십 덕목 중 하나는 안되면 되게 하는 “창조적 경영마인드”를 들 수 있습니다.

장군님은 창조적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거나 하지 않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장군님은 전쟁 이전에도 전쟁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지만 전쟁 중에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일본군을 이겨내기 위해 전술을 연구하고 부하들과 동료들을 격려하며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조건들이 일본군들에 비해 훨씬 적었지만 장군님은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극적이고 무언가를 나서서 하는 성격이 아니라 학교 수업도 욕심을 내서 고급반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8학년이 된 지금에는 고급반 수학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 수학 수업이 너무 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제가 1년을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께 말씀을 드려서 8학년 말에 시험을 통해서 고급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Credit By Exam”을 볼 수 있도록 대수학 수업을 가르치는 학원에 보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장소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는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 아니고 생전 처음 가서 듣는 학원 수업도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계속 이 상태로 있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 나름대로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뿐인 학원 수업은 시작할 때 도움은 되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오로지 저 혼자 스스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시험 공부 하기도 쉽지 않고 시험도 어렵다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현재 학교 수업 외에 따로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고 부담스럽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 “안되면 되게 하

라”는 마음 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또 다른 리더십 덕목은 그 누구와도 가능했던 ‘소통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장군님은 국왕 선조뿐만 아니라 조정의 모든 대신들과 서신을 통해 전쟁 상황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부하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도 스스로없이 소통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전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름학교 기간 동안 어린반 학생들과 선생님을 도와서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께서 필요한 일에 도움을 드렸고 아직 어린 다섯 살 아이들의 수업이나 놀이에 함께 하면서 어려운 일을 도와서 해결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조차 잘 못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원활한 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나 질문이 있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을 일일이 지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이 잘 되었기에 여름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님의 성공 리더십은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은 어떤 목적이나 공유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군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동료나 부하들보다 먼저 모든 일에 앞장 서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오랜 시간 공무를 보면서도 활쏘기나 무예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군님은 동료나 부하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자신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해결해 나가면서 주위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자신을 따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동생들은 뭐든지 제가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세 살 아래 제 여동생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귀찮고 부담스러운 마

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부모님이 아니라 저에게 혼날까봐 몰래 재시험을 보고 저처럼 모든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여동생의 그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속상해 하지만 그래도 언니처럼 될거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생이 저는 참 예쁘기만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님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시기와 비난을 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군님은 주위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사람들을 자신의 리더십과 인성으로 잘 이끌어 나라와 백성을 구해낸 우리나라 최고의 영웅이셨습니다.

저에게 귀감이 되었던 이순신의 훌륭한 리더십의 여러 덕목들 중 세가지, '창조 적 경영 마인드', '소통능력', 그리고 '솔선수범'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한 리더십들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제 자신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성격을 탓하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하에서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량 은상

진정한 소통의 리더

임 리 노

Rino Lim

중서부 시카고 하상한국학교 8학년

이순신 장군은 한국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하신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장군은 매우 용맹 하였으며, 거북선과 함께 한 많은 어렵고 잔인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리더십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순신 장군의 여러가지 리더십중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소통과 관련된 리더십이다. 이순신 장군은 소통에 훌륭한 능력을 지녔다. 소통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이다.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해야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 이순신 장군은 진실된 마음, 뛰어난 지도력, 병사들과의 우애, 그리고 장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소통의 리더십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이순신 장군의 지도력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그것은 준비와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동지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이순신 장군은 일생 동안 사전 준비를 잘하셨다, 장군은 재능도 많았지만 끊임

없이 학문과 무예 그리고 마음 수양 공부도 많이 하셨다. 장군은 전쟁과 다른 많은 주제들에 대해 책이나 경전에 대해 공부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은 참는 법을 배우고 자제력을 배웠다고 생각된다. 공부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 그 어려움을 견디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수양은 몸과 마음을 조금씩 알게 도와준다. 또한 준비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마다 공부에서 배운 기술과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순신 장군이 활 쏘기 연습을 남보다 더 많이 한 이유 때문에 전투에서 더 승리할 수 있었던 노력의 결실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이처럼 평생 동안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한 일들이 모여서 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이순신장군은 그의 병사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매우 탁월한 방법을 쓰셨다. 장군은 전쟁을 준비하기 전 평소에도 그의 병사들과 소통을 잘 하셨다. 소통의 방법으로 하신 일은 병사들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전해들을 때나 장군이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서로가 진심으로 마음을 전했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 진심은 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사들과 이순신 장군이 원하는 일 그리고 나라를 위해 협력하고 원하는 일 일본인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되찾고 싶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런 소통의 방법은 이순신 장군이 누구든 다른 사람을 대하실 때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의 병사들이 별을 받아야 할 때 장군 자신과 개인적인 유대 관계에 상관없이 그들이 잘못되면 별을 주었다고 알고 있다.

이런 소통의 방법은 장군의 부드럽고 강한 면들을 보여주고 또한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조율을 잘하는 멋진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이순신 장군께서 제일 소통을 잘 하신 것은 바로 자신과의 소통이라고 확신한다. 장군은 자신과의 약속인 일상 생활과 전투와 훈련 중에 항상 자신의 규칙을 따랐다. 전쟁을 준비를 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지치지 않고 도전하셨다.

이런 일들로 통해서 이순신 장군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삶을





관리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을 믿고 자신과 소통하며 설득하며 인내하였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자신과의 규칙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이겨내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옳은 일을 할 때 포기하지 않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 진다. 이런 모습은 이순신 장군의 자신과의 소통을 통한 훈련인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장군이였다.

그는 항상 미리 준비하고, 그 자신의 좋은 인품 그리고 군인들 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항상 그의 자신의 대한 마음에 소리와 생각의 발전을 위해 도전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치지 않는 그의 용기와 결단력, 인품,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장군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랑스럽고 꼭 배우고 싶은 모습이다. 또한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실천하시고 동료 그리고 가족과 화합하시며 전쟁을 승리로 만드신 이순신 장군의 모습들은 내가 꼭 배우고 싶은 소통의 리더십이다. 사실 나는 이순신 장군의 대한 글짓기를 하면서 배운 것이 아주 많다. 글짓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거 같았다. 그렇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장군에 대한 글을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금방 또 피가 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다. 지금의 나의 기분은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포기하지 않고 글짓기를 끝냈을 때 느낄 수 있는 상쾌한 마음과 글짓기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 값지게 노력하신 전투 전술과 소중한 인생에 대한 자신의 길을 잘 알기에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그에게서 소중한 삶의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명량 은상

준비된 리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조 예 인


Yein Cho

미주연합 동양선교교회한국학교 9학년

암흑과 혼란이 가득했던 나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백성들,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꿈이 있었고 용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조선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장군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장군은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 장군은 바로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장군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더불어 전쟁놀이를 했었고, 아이들은 항상 이순신을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순신은 청년이 돼서 무과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지면 과거시험에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순신은 다리를 나무로 묶고 시험을 끝까지 봤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순신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1590년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당시 조선의 왕



이었던 선조와 대신들은 이를 가벼운 소문 정도로 여기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다양한 정보를 들은 후 일본이 조선을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라좌수사에 임명된 이순신은 그때부터 1년 2개월 동안 전쟁준비를 했습니다. 판옥선과 화포를 만들고 거북선을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군사들을 모집하여 훈련시키고 철저히 일본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결국 이순신의 판단대로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에서 23번 싸운 이순신은 23번의 싸움을 모두 이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량 해전은 지금도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순신의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전쟁이었습니다.

명량전쟁을 앞두고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만 남았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과 함께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장군은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고 신 이순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부터 오륙년간 적인 왜놈들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로 바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의 배들이 바닷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지금 신에게는 싸울 수 있는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임한다면 이 싸움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하께서 우리 수군을 없애라고 명하신다면 이는 적인 왜놈들이 가장 다행하게 여길 이유가 될 것이며 왜놈들이 바로 호남과 충청을 거쳐 바로 한양에 다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이옵니다. 비록 싸울 수 있는 배가 적지만 신 이순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이것을 왜놈들이 안다면 감히 쉽게 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순신의 이 편지는 이순신이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와 백성을 더욱 사랑했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때는 선조가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이순신을 시기하여 그를 고문하고 권을 장군을 이순신 장군 대신 보내서 싸우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이순신 장군이 그동안 힘들게 준비해왔던 수군의 배가 거의 모두 부서지고 많은 군인들이 죽은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왕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라


를 지킬 방법을 찾는 것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 편지는 절망속에서도 소망을 찾는 이순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속에서도“아직”, “12 척이나”, “비록”, “감히”등의 단어를 썼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330 척이나 되는 일본군에 대항해 이순신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고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을 잘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순신같은 리더가 있었다면 많은 슬픈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 제일 저의 마음이 아팠던 일은 2014 년 4 월 16 일의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제 나이 또래의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 학생들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텐데 한국의 많은 리더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주인은 배를 마음대로 개조했고 배를 검사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화물을 실었던 사람들은 화물들을 제대로 묶지 않아서 배가 기울었을 때 배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어렵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배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선장과 승무원의 잘못된 방송 때문에 구조될 기회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조하러 갔던 해경들과 정치인들과 대통령조차도 자기들이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하나하나 다 자기가 해야할 일들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학생들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순신같은 진정한 리더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순신은 항상 자기 군사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리더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순신의 이런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자기가 할일을 정직하게 열심히 하고 어려울때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순신의 훌륭한 모습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커서 환자들을 정성껏 돌봐 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이순신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의사들이 많지만 저는 이순신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늘 열심히 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들을 한명 한명 다 소중하게 치료해주고 환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의사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순신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었듯이 다른 의사들이 저를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순신과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이 망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은 한 사람의 진정한 리더가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같은 리더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 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명량 동상

내 인생의 표지판

문 시 현

Diana Moon

재멕시코 재멕시코한글학교 10학년

매일 메고 다니는 책가방은 너무 무겁습니다. 아무리 그 가방이 무거워도 책을 두고 학교에 갈 수는 없음을 알기에 저는 그 가방을 매일 잘 챙겨서 메고 다닙니다. 그 무게 감에 지쳐 다소 불편불만의 한 상태에 빠진 저는 이번 이순신 장군님의 리더십을 공부하며 장군님이 메고가셨을 삶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가난하고 힘없던 당시의 우리나라를 두 어깨에 맬 수 있었던 것은 그 분의 희생과 사랑의 책가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물건을 담은 책가방처럼 이순신 장군님은 그의 어깨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담았고 백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순간도 그 가방을 내려 놓지 않으셨기에 12척의 배로 300여대의 왜척을 무찌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게는 희생이었고 애국이었고 책임감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방에도 그분의 이런 정신을 담아 봅니다.

장군님은 어린 나이부터 '통감강목'을 내용을 다 아실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문인이 되어 출세할 수 있을 실력과 능력이 되셨지만 이것을 다 내려놓고 택하신 길은 무인의 길이었습니다. 앞에 놓여진 더 쉽고 편한 길을 포기하시고 나라를 위해 무인이

되어 나라에 충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임금과 충신들에게 오해를 받아 백의종군이 되어 전라지역에 머무는 동안 왜군의 침략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다를 포기하라는 선조와 적국의 힘과 무기에 주눅들어 후퇴하자는 부하들의 말림에도 그는 떳떳하게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가 결국 당시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합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부하들을 존중하여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로 여기셨습니다. 주위의 의견을 들었고 반대되는 의견도 존중하며 사람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 뿐만 아니라 애국심과 책임감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전략을 위해 꾸준한 독서와 기록하는 습관으로 그 위대한 결국 거북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입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군님 같은 사랑 없이 자기 명예만을 위한 리더는 역사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셨던 명량해전이 있었던 진도의 바다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다시 가 본다면... 휘오리물결 치던 진도 바다 앞에서 나라를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이순신 장군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춰보며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역사속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님의 희생정신과 청렴함, 소통의 리더십, 포기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용기, 냉철한 통찰력, 처절하게 외면당하는 외로움 중에서도 읽고 기록하는 지식으로 얻어낸 거북선, 적군의 힘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단호함을 제 인생의 표지판으로 세우려 합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 가끔 길을 잃어 아찔할 때가 있곤 했습니다. 이곳 멕시코는 길 안내판이 제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기에 초행길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오히려 낯선 미국이나 한국에 가서는 길을 잃고 헤메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는 제대로 된 표지판과 안내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에도 제대로 된 표지판이 있다면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리더십을 통해 배우게 된 그의 정신을 제인생의 표지판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 표지판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찌면 저의 가방은 더 무거워 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당신 편하자고 그 분 어깨에 들린 나라와 백성을 내려놓지 않으셨듯이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쉽게 포기 하지 않고 지금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빛내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타국에서 동양인으로 살아가는 길 이 가끔 외롭고 힘겨워 홀로 눈물 지을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순신 장군님의 리더십을 통해 도 전과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의 역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런 배움의 기회를 주신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명량 동상

진정한 리더로서의 이순신 장군

오 우 혁

Kevin Oh

콜로라도 새문한국학교 10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한국을 빛낸 100의 위인들>이라는 책을 사서 준 적이 있다. 그 책에 나오는 위인들을 매주 한사람씩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나는 서너 페이지를 넘기고 포기했다. 한국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유명인사라고는 BTS 정도밖에 모르는 나에게 그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그 책을 더 이상 읽지 않는 것을 눈치 챈 어머니는 100명의 위인 중 5명만 골라주셨다. 그 5명에 이순신 장군이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 할 수 없이 대충 읽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군님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게 된 일이 생겼다. 한국영화 <명량해전>을 보고 난 이후이다.

텐버의 영화관에서 처음 본 한국영화가 <명량해전>이었다. 영화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위대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책에서 본 장군님이라서 그런지 친근함이 느껴졌다. 영화를 보고 난 후 12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일본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은 나의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3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크게 서 있는 것을 보

고 더욱 멋있게 느껴졌다.

〈명량해전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외 활동 중 하나가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선생님들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쌓아야 하는 봉사활동 스펙에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나는 명량해전을 책으로 읽고 영화로도 보고 난 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존경하게 되었고, 다른 리더십의 내용도 많지만 내가 본받고 싶은 부분은 세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순신 장군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 본인의 이익보다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자기를 괴롭히고 모함하는 조선 왕과 관리들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왕이 이순신 장군을 압송하라는 명령했을 때도 이순신 장군은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힘들 때 자기마저 내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왕의 명령에 따랐다. 나라가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의 마음이다.

두 번째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평소에는 착한 분이지만 탈영병은 가차없이 처형시켰다. 우리 편 군인들의 수는 작았고, 일본 군인은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 편 군인들은 겁이 났다.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겁이 많은 군인들은 도망을 가려고 했다. 이순신 장군은 도망가는 군인들 때문에 다른 군인들도 덩달아 불안해 하는 것을 알고 엄격한 군법으로 탈영병을 죽였다. 죽이지 않으면 모든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전체 부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군법을 지켜 겁쟁이 군사를 죽였다. 도망가는 비겁한 군인은 죽을 수 밖에 없고, 우리 군인들에게는 일본에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주어 군대의 분위기를 이끈 것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에서 나온 것이다.



세 번째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은 바뀌지 않는 신념이다. 나는 치킨이 먹고 싶지 않아도, 다른 친구들이 전부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치킨을 먹으러 간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도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틀렸다고 말하면 그냥 친구들의 생각을 따라간 적이 많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은 왕과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욕하고 싫어하고 반대해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 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우리의 배와 군인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장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싸우라고 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면서 왕의 명령에 상관없이 본인의 신념대로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너무 많아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 때, 군사를 죽이면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이 부족하지만 자신의 신념대로 엄격하게 군대를 이끌었다.

〈충무공의 일곱 가지 리더십〉

1. 소통

전쟁이 일어나서 주변이 쑥대밭이 되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에게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부하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다.

2. 청렴

이순신 장군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큰 벼슬을 주려고 했지만 거절했다.

3. 용기

명량해전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면 살 것ियो,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전을 앞두고 무서워하는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4. 단호함

이순신 장군은 다른 장군들과 같이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신념으로 죽을 힘을 다해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했다.

5. 희생정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다쳤지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싸워서 나라를 구했다.

6. 통찰력

일본 군인에 비해 우리나라 군인의 수가 작아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울돌목의 물살을 잘 관찰하여 침착하게 전쟁을 준비했다.


7. 기록하는 습관

이순신 장군은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고, 전쟁 중에도 항상 일기를 쓰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난중일기를 써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판옥선의 탄생과 역사적 공헌〉

판옥선이라는 말은 이번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다. 내가 아는 것은 거북선이다. 그런데 이번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거북선의 처음 모습이 판옥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우리의 중요한 군함으로 이용되었는데, 갑판 위에 집 모양의 지휘소가 있어서 이름이 판옥선이 되었다고 한다. 판옥선은 일본 배에 비해 크기가 크고 높았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뛰어 오르기 어려웠다. 또, 일본 배보다 파위가 뛰어났다. 하지만 판옥선의 문제점은 속도가 느린 것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의 단점을 고쳐서 거북선을 만들었다. 거북선 모양은 판옥선 2층에 지붕을 깔고 그 위에 얇은 철판과 뿔을 설치했다. 거북이를 올려놓은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은 속도가 빠른 거북선을 돌진시켜 적의 배를 흩어지게 한 다음, 판옥선에서 화포 공격을 퍼부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고 판옥선은 유명한 거북선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었다. 빠른 속도의 거북선과 배 옆에서 총을 쏠 수 있는 판옥선의 장점들이 합쳐져서 일본을 물리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라는 것을 중학생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전세계에는 유명한 장군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아는 이순신 장군이 최고인 것 같다. 내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게 된 것은 명랑해전 영화를 보고 난 뒤



다.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오직 국가와 백성을 위하는 모습에 반했고, 무엇보다도 12척의 배로 백 척을 가진 일본군과 싸우는 모습은 정말 멋졌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가지에 재주를 가진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던 이순신 장군이 좋다. 이순신 장군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선박을 잘 만들고, 바다 물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었다고 한다. 결국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통찰력으로 일본 군대를 박살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나는 미국 친구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명량해전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다.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정말 위대한 장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였다. 나는 앞으로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장군이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큰 칼을 차고 서있는 이순신 장군을 볼 때마다 나는 우리나라가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명랑 동상


한국의 현명하신 사령관, 이순신 장군

정혜나

Hannah Jeong

워싱턴 성김안드레아한국학교 8학년

“지도력은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대담하고 영리한 지도자가 생각난다고 말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지도력은 하나의 표현으로 설명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주변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인종 차별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지도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종들을 이끄는 힘을 가지는 사람이며 또 공익을 선호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같은 일본과 13척의 군함으로 싸울때에도 그런 지도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13척의 일본군함 수와 우리군함 수가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과 국민들은 이순신 장군의 신의와 도덕심을 믿고 함께 일본군과 싸웠고 이겼습니다. 다른 인종이 많은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이순신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 언제나 갈등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미국에서는 공익을 선호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진 지도력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공익 목표는 전쟁을 이기려고 하기도 했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전쟁에서 싸우고 쳐들어 오는 나라들을 막는 목적을 갖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현명하신 사령관이라고 의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의 한국 사람들 중에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같이 회의에 참여해서 군대를 이끌고 지도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의 예는 거의 불가능했던 명량해전의 승리가 당연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은 이미 전쟁을 나간 상태에서 군인들의 큰 수를 잃어버려서 군인들의 사기가 낮았으나, 이순신 장군의 존재 하나로만 군인들의 사기가 하늘 높이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존경과 믿음을 과거에 싸웠던 예리한 전쟁 전략들 때문에 존경과 신용이 군인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 분은 전략가였으며 지리와 파도의 움직임을 공부하여 전략을 계획하였고 그래서 명량대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배들의 진열을 새 모양으로 한 “학익진” 전략은 한산도 대첩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순신 장군은 배의 높이를 조절하여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형을 개조하여 일본군들이 우리 조선배에 뛰어들어오지 못하게 영리하게 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거북선은 거북이처럼 생겼고 전략적으로 우리 군사를 보호하려고 뾰족한 못을 배의 밖에 박아서 일본군들이 우리 군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군함은 유명한 거북선입니다. 이 배에는 커다란 용이 자신감 있게 앞쪽에 서있습니다. 그런 모양새는 일본군을 공격하는 상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낸 이순신 장군은 아마도 자신감 있는 군사 한 명이 천 명의 적이 와도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에 나와있는 것을 읽어 보면 그 분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의지는 단단합니다. 그 당시의 임금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동해를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는 죽은 군인들의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동해를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부산 근처의 동해를 안전하게 지켜야 조선이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략가이고 신뢰가 많은 이순신 장군이 미국 역사에 나오는 조지 와싱턴 장군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와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이 트렌튼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적군들은 조지 와싱턴 장군이 추운 날씨에 군대가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적군, 독인군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이기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전쟁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으려는 전략을 조지 와싱턴 장군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와싱턴 장군은 이런 날에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크리스마스 연휴에 트렌튼 전쟁을 하였습니다. 결국에 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인들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지 와싱턴 장군은 이순신 장군같은 현명한 전략가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지 와싱턴이 비슷한 또다른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 단단한 의지와 영리한 전략으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순신 장군의 존재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존재감만으로도 장군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의지감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 분은 난중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 죽으려고 하면 산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 가난한 한국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한국으로써 적은 숫자의 배를 가지고 많은 숫자의 일본 군사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죽으려는 생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마음가짐도 죽음을 생각하고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돌아가셨어도 그 분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 군사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한국이 제일 힘들때 나라의 국민들을 이끌어 힘이 되었습니다. 1545년 4월 28일에 태어나시고 어릴때부터 훌륭한 장군이 될 거라고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바다에서는 한번도 적군한테 지지 않으시고 역사에서 최고의 장군의 이름을 새우시고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싸우시면서 일본을 상대편으로 한국의 경치를 사용해 예리한 계획 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수로 능가하고도 가난한 한국은 무기 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이순신 장군은 이 어려운 상황을 겪어내고 영리한 계획을 만들어 지금 멀리 알려진 명량의 전투라는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13척의 배 숫자로 왜군의 133척을 이겼다는 사실은 엄청납니다. 숫자의 상대로 무리이었으며 상상해봐도 일본이 압도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그 명량해전에서 바다의 흐름과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이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분의 의지와 지도력이 한국의 미래를 세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한국을 갖기 위해 침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등등의 나라들은 한국을 차지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도 중국과 일본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자랑스러운 후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가르쳐주신 현명한 지도력, 포기하지 않는 의지, 신의를 지키는 실천력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십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순신 미주교육본부

YISUNSIN AMERICA INSTITUTE

10018 Burke Lake Rd., Burke, VA 22015, USA

www.yisunsinworld.com

이순신 미주교육본부는 전세계 한국학교 학생들과 한인 2세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미국내 주류사회를 이끄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과 전세계에 이순신 장군의 참모습을 알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등 민간외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순신 미주교육본부에서는 세계 한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순신 글쓰기 공모전과 세계한국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순신 교육안 쓰기대회를 각각 3개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순신 미주교육본부는 2004년부터 미주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한국계 학생들이 <이순신 정신 인성>을 배우고 본 받아 해외 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바르고 높이 자라도록 이순신 교육자료 (www.yisunsinworld.com)를 7개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이웃 현지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인의 자랑인 이순신 장군 (Admiral Yi Sun-Sin)을 손쉽게 소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매년 충무공 이순신 교육안 공모대회와 글쓰기 대회 그리고 한글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여, 지역의 문화 행사 및 충무공 이순신 강연회와 상영회를 갖으며 주요 협력 기관을 방문하여 충무공 이순신을 통한 차세대 정체성과 인성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 : 학생들에게 충무공 이순신을 통한 인성 교육

충무공 이순신 강연회와 상영회, 세미나, 공모전 등 개최

충무공 이순신 정신 함양을 통한 인재육성

지역사회에 충무공 이순신 바로 알리기 위한 사업

한국 및 세계의 충무공 이순신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3회를 맞이한 이순신 글쓰기 대회는 전 세계를 향하였고, 학생들의 작품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다.

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찾고 연구하면서 장군의 나라 사랑, 부모 공경, 사람을 향한 사랑 등을 느끼고 배우고자 했다.

이제 한걸음 더 가까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작은 이순신의 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작은 이순신을 마음에 품은 우리 학생들이 4차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세상의 리더로 굳게 서길 기대해 본다.

편집 후기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

YISUNSIN AMERICA INSTITUTE

